대한상의 ESG 뉴스레터

제6호
2021년 10월



전문가 기고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선한 임팩트

주요 이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ESG 동향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동향
플라스틱 규제와 기업 동향

주요 통계

대한상공회의소

전문가 기고

ESG 경영과 사회적 가치 창출, 그리고 선한 임팩트



(사)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이호영 교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강조되는 경영환경의 변화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시키고 ESG경영으로 구체화되어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 정책당국, 시민단체를 비롯한 기업을 둘러싼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ESG 경영성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책임성과, ESG성과 등의 이름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홈페이지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비재무적 정보의 형태로 외부에 공시하고 있다. 미래 수익창출력의 현재가치로 표현되는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재무적 성과 정보에만 의존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설명력이 더욱 약해지고 있다. 기업의 가치를 더욱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공동체의 가치창출과 연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과정보에 더욱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환경의 변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ESG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수립과 적극적인 실천을 고민하도록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되었다.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ESG성과 공시를 확대하겠다는 움직임이 구체화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용한 ESG성과 정보인지, 특정 정보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로써 유용하려면, 갖추어야 할 속성이 몇 가지 있다. 그러한 속성의 예로는 재무적 정보와 관련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시한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이 있다. 그들은 목적적합성(relevance), 표현의 충실성(faithful representation) 등을 포함한다. ESG와 관련된 정보도, 유사한 개념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ESG 경영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의 취지 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대한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수행하는 특정 ESG활동 또는 프로그램의 추진 목적 일부 혹은 전부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ESG프로그램이 사회적 가치 창출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적 기회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기꺼이 부담한다는 실제성의 원칙도 필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측정가능성 및 표준화의 원칙 등 개념적 정리가 필요하다.

물론 ESG 경영이 그 근본 목적을 달성하고 정착되려면, 단순히 개념체계와 측정 메트릭이 정립되고 관련정보가 제공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ESG관련 정보는 산업별, 기업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동일한 정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측정과 평가의 표준화에 지나치게 매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이다. 다양한 매체와 보고서를 통해서 ESG와 관련된 정보를 접하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은 단순히 종합점수나 특정 사실에 근거해서 좋은 기업, 나쁜 기업으로 이분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백화점식으로 주요 평가기관에서 제시하는 ESG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기업은, 각종 순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것이나, 이는 현재 가용자원이 많다는 의미일 뿐이지, ESG가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고 있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ESG 경영이 오늘날 왜 관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과 윤리성의 확보,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로 표현되는 선한 영향력의 제고가 진정한 ESG 경영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SG 경영의 전략적 핵심은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연결고리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의 행복의 증진이 최고의 선이며 이는 실천하는 주체가 중용을 찾아가는 지혜를 요구한다고 했다. 기업이 인류공동체와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선한 임팩트를 발휘하겠다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주요 이슈 1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김경훈 연구위원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 대표적이다. 민간 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SIB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① 임팩트 투자의 개념 및 특징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로 2007년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 창출이란 빈곤 및 양극화 해소, 범죄 예방, 환경 보호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UN은 사회적 가치의 지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을 제시하고 있다. SDGs는 모든 국가들이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UN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발전, 경제성장, 환경 보존' 3가지 축의 균형있는 발전을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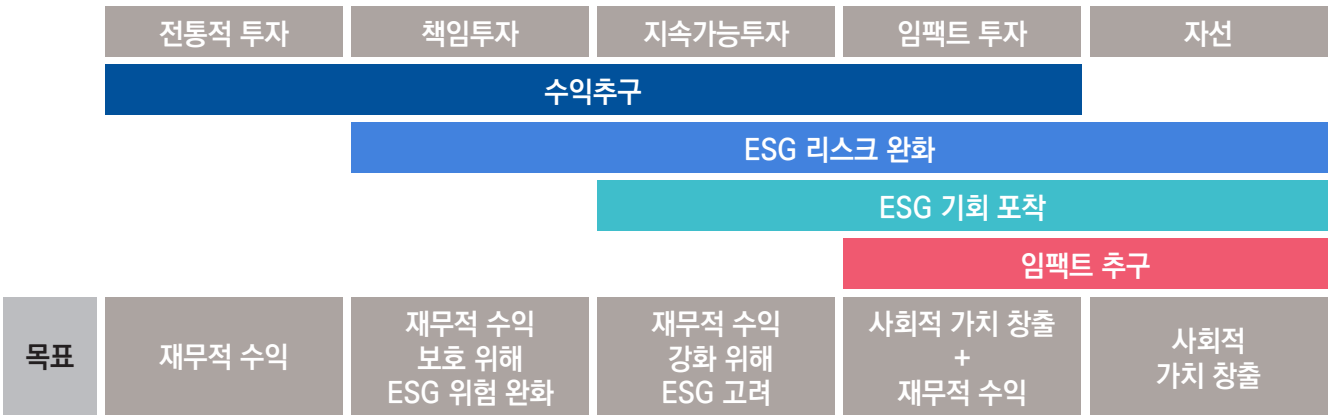
재무적 수익은 단순한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창출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위험조정 수익률이다. 따라서 임팩트 투자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의 측정이 동반되어야 한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 가치만 추구하는 자선과 재무적 수익만 추구하는 전통적 투자의 중간영역에 해당한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만 재무적 수익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책임투자나 지속가능투자와도 구분된다.

책임투자는 재무적 수익을 위해 ESG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투자는 재무적 수익을 위해 ESG를 추구한다. 이에 비해 임팩트 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이 투자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다.

임팩트 투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3년 406억 달러에 불과했던 글로벌 투자 규모가 2020년 4,040억 달러까지 크게 증가했다. 국내에서도 현재 7,000억 원 규모의 임팩트 투자 관련 펀드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투자의 스펙트럼



※ 자료 : Brides Fund Management 참조

②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임팩트 투자의 대표적인 예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다. SIB는 민간 투자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정부가 성과급을 민간기관에게 지급하는 계약이다.

세계 최초의 SIB는 2010년 영국 피터버러(Peterborough)시가 교도소 출소자의 재범률 하락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피터버리시는 임팩트 투자자의 투자자금을 이용해 교도소 수형자에게 사회적응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을 받은 수형자의 재범률이 하락한 정도에 따라 투자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후 SIB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0.7월~2021.3월 기간동안 전세계적으로 204개의 SIB가 시행되었는데 그 중 영국에서 시행된 SIB가 89개로 가장 많았고, 미국에서 시행된 SIB가 27개로 두번째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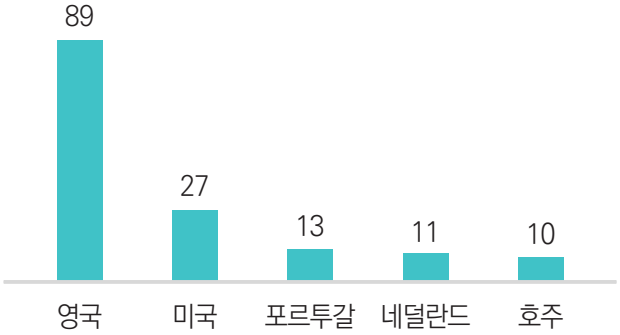
국내에서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SIB 사업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2016.8월~2019.8월 기간동안 경계선지능 아동의 지능지수 및 사회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SIB 사업을 진행했다.

경계선지능 아동은 지능지수가 71~84 수준인 아동으로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경계선지능 아동이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면서 지능지수가 지적장애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았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자금 10.3억을 유치해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 지능 아동 74명에게 인지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대상 아동의 지능 검사와 사회성 평가 지표의 개선 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육아동의 42% 이상이 지능 및 사회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사업수행 결과, 대상아동의 52.7%가 지능검사 및 사회성 지표가 개선되어 서울시와 투자자 모두가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임팩트 투자모델과 사회서비스 채널로써의 SIB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가별 SIB 수



※ 자료 : Government Outcomes Lab (2021.3)

서울시 SIB 사업 성과보상 체계

구분	성공 비율	성과급
최대목표	42%이상	원금의 30%
성공 구간	34~41%	단계별 성과급
분기점	31~33%	원금 상환
손실 구간	11~30%	원금 부분 상환
실패	10% 이하	원금 100% 손실

※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주요 이슈 2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이경인 선임

사회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중요한 주체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초기단계로, 인증제를 바탕으로 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사회적 기업 현황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실업률 증가, 양극화 심화 등으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를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 하에 사회적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됐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법적·사회구조적 차이로 인해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혁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회통합을 증진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2007년 55개의 사회적 기업이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777개사('20년)가 인증을 받는 등 가파르게 증가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조직형태, 의사결정구조,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몇 가지 인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사회적 기업들은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분류해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총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주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사회서비스제공형),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를 늘리거나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이 주목적인 경우(지역사회공헌형) 등으로 나뉘는데, 일자리제공형(1,834개)이 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20년)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상법」 상 회사·합자조합만 해당)

※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② 사회적 기업 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은 크게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뉜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초기 사회적 기업의 신규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기업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인건비(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전략기획·회계·마케팅·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최대 3년간 기업당 2명의 인건비를 월 200만원(경력에 따라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연도별로 차등을 두어 일정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4년간 5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로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취득, 품질개선 등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간 연 1억원 이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대 2년간 연 5천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는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사업 이외에도 경영컨설팅 지원, 소득세·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금융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간접지원 정책들이 마련돼 있다.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간·한도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 일부 지원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內 최대지원기간 2년, 1~2년차 기업 각 50% (취약계층은 + 20%) (인증 사회적기업) 지원개시일부터 5년 內 최대지원기간 3년, 1~3년차 기업 각 40% (취약계층은 + 20%)
전문인력 지원사업	전문인력 채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경력요건에 따라 200/250만원 한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內 최대지원기간 2년, 기업당 1명 (인증) 지원개시일부터 5년 內 최대지원기간 3년,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인증) 지원개시일부터 5년 內 최대지원기간 4년, 50명 한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R&D, 홍보·마케팅 등 사업개발비용 지원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內 최대지원기간 2년, 연 5천만 원 (인증)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內 최대지원기간 3년, 연 1억 원

※ 자료 : 고용노동부

ESG 동향 1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동향



김예나 연구원

최근 유엔이 개최한 'SDG 모멘트'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적극적 참여도 요구되고 있어 국내외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①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난 9월 제2회 'SDG 모멘트' 가 개최되었다. 'SDG 모멘트'는 유엔총회의 특별행사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촉구하기 위한 행사이다.

2015년 유엔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모든 국가들이 인류의 번영과 환경 보호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한다.

17개 목표에는 빈곤 근절(No Poverty), 기아 종식(Zero Hunger), 양질의 교육(Quality Education), 성평등 달성(Gender Equality), 깨끗한 물과 위생(Clean Water and Sanitation),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Decent Work and Econimic Growth), 기후변화 대응(Climate Action)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SDGs 위한 국내 동향

유엔의 SDGs 채택 이후 한국 정부는 2018년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했다.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 법을 통해 UN-SDGs의 개별 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유엔에서 각국의 이행상황을 보고한 '2021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65개국 가운데 28위를 차지했다. 17가지 목표 중 '양질의 교육'을 달성했고, 이 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로 정부 정책이 SDGs가 의도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투자가 이뤄지고 시장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 지속가능발전목표별 달성 정도



※ 자료 : 유엔 '2021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ESG 동향 2

플라스틱 규제와 기업 동향



이진 연구원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탈(脫) 플라스틱' 움직임도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① 플라스틱 규제 강화

정부는 지난해 12월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플라스틱 활용을 20%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세로 불리는 폐기물 부담금을 국제적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을 제한한다. 재포장을 금지하는 등 배달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도 줄이기로 했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를 도입하고 무색 페트병 의무화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재생원료나 라벨 없는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자분담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플라스틱 규제는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EU는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고, 인도와 중국은 재활용 비율이 적은 비닐봉지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② 국내 기업 동향

화장품 업계는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리필 스테이션이 활성화될 경우 매장 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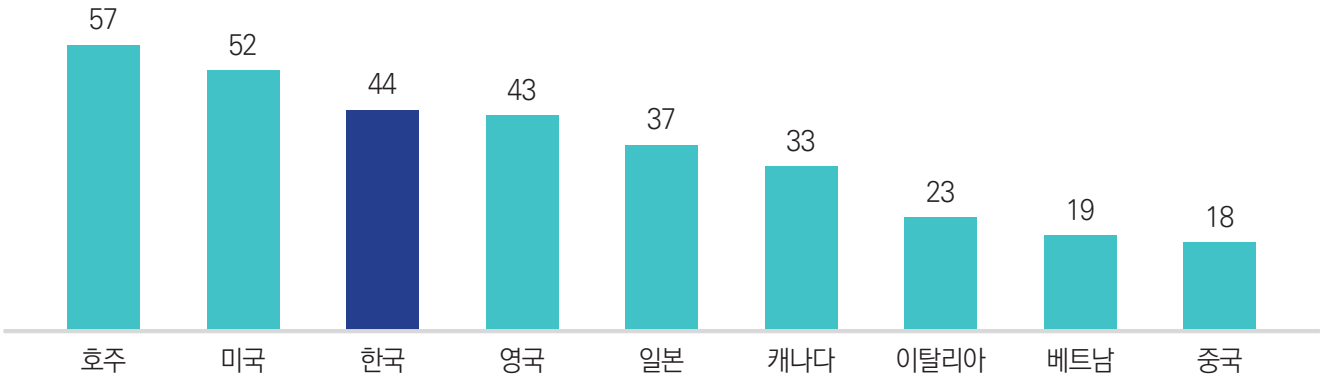
음료, 생수 등 식음료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이 중요한 과제다.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등 식음료 업체들은 페트병 제품의 라벨을 없애고 투명한 병으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폐플라스틱을 이용한 복합수지를 개발했고, 효성티앤씨는 섬유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중요해졌다. 플라스틱 규제를 비롯해 기업을 둘러싼 환경관련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별 1인당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량 비교(2019)

(단위 : kg)



※ 자료 : The Minderoo Foundation

ESG 통계 지표

2021년 9월말 기준

1. ESG 금융

(1)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 종목 수

(단위 : 개)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녹색채권	21	31	43	55	69	85	94	105	122	122	131
사회적채권	178	471	488	505	538	572	599	632	663	689	710
지속가능채권	8	44	46	58	69	93	113	124	144	162	178

(2) 국내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잔액

(단위 : 천억 원)

	2019	2020	'2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녹색채권	21	30	43	57	72	90	103	113	129	128	139
사회적채권	246	736	766	786	847	918	979	1,018	1,079	1,125	1,166
지속가능채권	21	54	56	74	80	99	105	120	129	141	153

2. ESG 평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단위 : 개)

평가등급	종합	E	S	G
A	2	3	6	4
B	13	12	8	9
C	2	2	3	4

자료 : ESG행복경제연구소(2021.7)

*총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3. 기타 통계

UN PRI 신규가입 기업 수

(단위 : 개)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자산운용사	103	136	214	290	472	698	710	3253
자산소유자	22	26	39	53	89	113	102	653
서비스 제공기관	20	26	29	34	70	102	72	473
기타	-	-	-	-	-	-	-	1
총합	145	187	282	377	631	913	884	4380

자료 : UN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2021년 ESG 뉴스레터 주요 이슈 목록

5월	| 기후변화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ESG의 개념 및 구성요소
6월	| 주요국 기후변화 관련 규제·정책 동향 | 우리나라 탄소중립 추진 계획
7월	| 국내외 ESG 정보공개 의무화 동향 | 글로벌 기관의 정보공개 기준 및 표준화 동향
8월	| 글로벌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 한국 ESG 평가기관의 기준 및 특징
9월	| ESG 경영전략 | Supply chain과 ESG
10월	**|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11월	| COP26 주요 의제와 시사점 | 스튜어드십 코드와 주주행동주의
12월	| 사회적 가치 측정과 활용 | 지속가능 금융 현황 및 전망

※ 상기 주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및 문의처

* 대한상공회의소 SGI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 투자

김경훈 연구위원

T. (02)6050-3144 | E. khkim1206@korcham.net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이경인 선임

T. (02)6050-3132 | E. kyung@korcham.net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내 동향

김예나 연구원

T. (02)6050-3141 | E. yenakim@korcham.net

플라스틱 규제와 기업 동향

이 진 연구원

T. (02)6050-3143 | E. jlee99@korcham.net

ESG 통계 지표

김민성 연구원

T. (02)6050-3139 | E. mskim62@korcham.net